

GMA 레지던시 30년... 창작·국제교류 지평 넓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3일 레지던시 30주년 기념 포럼을 연다. 사진은 레지던시 사업 일환인 '2025 청년예술센터 결과보고전' 개막식 단체사진과 2025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전경.

‘이동형 창작공간 흔들기’ 포럼...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1층 로비

발표·토론 등 예술 공론 장 마련

광주시립미술관이 레지던시 운영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국내외 창작 교류의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다.

‘이동형 창작공간 흔들기(Shake the Movable Creative Space)’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오는 3일 오후 2시 미술관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시립미술관은 1995년 팔각정 건물에서 국내 최초 아티스트 레지던시 ‘팔각정 스튜디오’를 출범시켰다. 이후 양산동 창작스튜디오(2004-201

2), 북경창작스튜디오(2010-2024), 중외공원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2017~), 사직동 청년예술센터(2017~) 등으로 창작 공간의 확장과 변화를 이어왔다.

더불어 대만·독일·일본 등 해외 기관과의 1:1 교류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하며, 올해 캐나다 방문 프로그램까지 신설해 지역 작가 및 연구자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포럼은 1·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역대 입주 작가 신창운(팔각정 창작스튜디오 2003-2006), 이인성(북경창작스튜디오 2011), 율리아 엠스란더(국제레지던시 2025),

김민경(청년예술센터 2024)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며,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30년사를 돌아보는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레지던시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가 마련됐다.

▲서상호 독립큐레이터 ‘한국의 레지던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에서 묻다!’ ▲허장수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2팀장 ‘홍티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본 아트 레지던시의 변화와 전망’ ▲짐 존슨 페슈카(Peshkar) 총괄 디렉터 ‘페슈카의 글로벌 캔버스’ 발제가 이어진다.

기조발제자인 서상호 큐레이터는 예술공간양

레지던시 예술감독(2020), 바다미술제 전시 감독(2019) 등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레지던시 동향과 해외 사례, 국가 간 새로운 교류 가능성을 살핀다.

허장수 팀장은 부산문화재단에서의 국제교류·청년문화·문화공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홍티아트센터 사례와 해외 레지던시 교류의 확장성을 논한다.

영국 올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짐 존슨 디렉터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소속 기관 ‘페슈카’가 구축해온 국제 협업 사례와 ‘Global Canvas methodology’를 소개하며, 레지던시 모델의 전환 가

능성을 짚는다.

발제 이후 김영희(지구발전오라 공동디렉터), 이명훈(예술공간 돈키호테 공동대표)이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GMA 레지던시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공간이 직면한 레지던시 사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참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사전 신청(구글폼 <https://forms.gle/BX3vBRQsAVVCzLiA9>) 또는 현장 참여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조용히 스며드는 울림...12월 수요일콘서트서 감성 융복합 무대 만나볼까

3·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3일과 1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12월 수요일콘서트를 개최한다.

12월 수요일콘서트는 ▲조이오브뮤직의 ‘슈만, 환상과 사랑’ ▲사니아트프로젝트 ‘현(絃) 위에 머무는 선(線)’으로 구성됐다. 클래식과 미술, 전통무용과 첼로가 결합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3일 공연은 클래식 전문 단체 ‘조이오브뮤직’이 선보이는 무대다.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의 시적 감성과 내면세계를 조명한다. 슈만이 아내 클라라 슈만을 향한 사랑을 담아 작곡한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 전곡을 중심으로 낭만주의가 지닌 깊은 정서를 전한다. 연주와 함께 ‘환상’과 ‘사랑’을 주제로 한 낭만파 회화 작품도 함께 선보여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지는 감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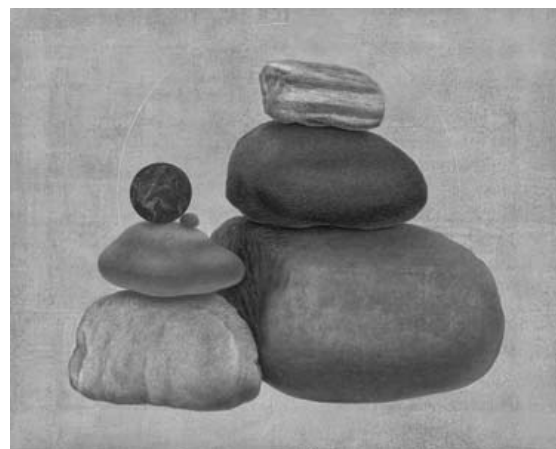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

10일 공연은 ‘사니 아트프로젝트(사진)’가 한국 전통무용을 기반으로 클래식, 국악, 첼로 연주를 결합한 융합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무용의 섬세한 선(線)과 첼로의 깊은 음색이 만나 서로 다른 예술이 하나의 감정선으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궁중무용 ‘춘앵전’,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1번’, ‘나 가거든’, ‘아름다운 나라’ 등을 재구성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시도했다. 익숙한 선율에 따뜻한 정서를 더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수요일콘서트 입장료는 1인당 5천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공연팀에게 전달된다. /최명진 기자

윤준영 작가와 함께하는 ‘GB 작가탐방’



오는 4일 예술공간집

‘하나, 둘 그리고 세계’

광주비엔날레 ‘GB 작가탐방’ 열 번째 대화에 윤준영 작가가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4일 오후 4시 동구 예술공간집에서 열린다.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을 졸업했으며 일본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레지던시(2019),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2015), 의재창작스튜디오(2012) 등 여러 국내외 레지던시를 거치며 작업 활동을 확장해왔다.

그는 인간 존재와 내면의 불안을 시각적 언어로 탐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바깥에서 들여다 보는 시선’을 통해 자신을 상실한

자, 추방된 자, 그리고 ‘더 이상 나라고 말할 수 없는 자’의 자리를 응시한다.

작가는 한지에 먹과 종이를 사용해 새, 물, 달과 같은 존재들의 은유적 풍경을 그린다. 풍경은 단순한 어둠의 표상을 넘어 마음의 상태와 빛의 움직임, 운기의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번 진행은 김성우 프라임머리 프랙티스 큐레이터가 맡는다. 불안과 고요, 상실과 회복이 교차하는 내면의 풍경이 어떻게 ‘나의 원형’을 탐색할 수 있는지 모색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일까지 ‘2026 상반기 단원’ 모집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오준혁)이 2026년 상반기 청소년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꿈과 재능이 있고 용모 단정한 광주 거주 초등학교 4학년(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응시가능)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오는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네이버폼(<https://naver.me/GvflRir2>)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6일 오후 2시부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실기전형 지정곡(그네 친구(설재호 곡), 파오기(윤국

영 곡), 하늘나라 동화(이강산 곡) 中 1곡), 음정테스트와 면접전형으로 이뤄진다.

최종 합격자는 9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이달 말부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서 합창,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공연수당 및 활동지원금(장학금), 단복·간식 제공 등의 특전도 주어진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